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복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이 만난 사람

토박이말 살리기 운동하는 배달말지기
이창수 선생님

비속어, 은어, 외래어의 범람 속에서 우리 조상의 삶과 얼이 담긴 토박이말을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창수 선생님을 서면 인터뷰로 만나보았다.

누리집에 날마다 새로운 토박이말을 찾아서 올리고, 토박이말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는 ‘배달말지기’를 응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토박이말을 마구 써서 거리낌 없이 쓰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토박이말이 무엇인지 예와 함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토박이말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만들어 써 오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말을 뜻합니다. 하늘, 땅, 사람, 기쁘다, 마음답다, 시나브로, 짜장과 같은 말이 토박이말입니다.

토박이말은 흔히 순우리말, 고유어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토박이말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걸어오신 삶과 얼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깊이와 넓이가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온 누리에서 가장 으뜸 가는 글자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한글을 낳은 우리말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토박이말’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토박이말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 배움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왜 공부를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배우는 배움책이 어려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기 쉬운 토박이말로 가르치는 걸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려고 이렇게 터를 거리고 있습니다. 토박이말 조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말모이(사전)와 책에 나오는 토박이말 가운데 알고 쓰면 좋을 만한 것들을 찾아 하루에 하나씩 맛보며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한답니다.

우리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가장 먼저 했던
우리말 도로 찾기를 제대로 못 한 채,
일흔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삶이
우리 토박이말과 너무 멀어져 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서 토박이말의 몇 가지 예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외에 토박이말 몇 가지를 더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박이말에 짜장, 꽃등, 모갓돈, 곰살굿다, 띠앗, 겨꿈내기, 여우벌, 새물내, 풀치다, 안차다, 너울가지, 지머리, 늘품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낯설고 어렵다고 하지만 맛을 들인 아이들은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과 글 속에 넣어 쓰는 걸 보면서 기운을 얻습니다.

*편집자 주)

짜장은 ‘과연 정말로’, 꽃등은 ‘맨 처음’, 모갓돈은 ‘액수가 많은 돈’, 곰살굿다는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띠앗은 ‘형제나 지매 사이의 우애상’, 겨꿈내기는 ‘서로 번갈아 하기’, 여우벌은 ‘비나 눈이 오는 날 잠깐 났다가 숨어버리는 별’, 새물내는 ‘빨라하여 갓 입을 옷에서 나는 냄새’, 풀치다는 ‘뻗었던 생각을 툭러 너그럽게 용서하다’, 안차다는 ‘겉이 없고 아무지다’, 너울가지는 ‘불임상’, 지머리는 ‘차분하고 꾸준하’, 늘품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을 뜻하는 토박이말이다.

선생님이 맛보여 주는 토박이말을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꾸려가고 있는 누리집이 있습니다. 배달말지기 누리집 배달말누리(<http://baedalma.kr>)에 오시면 날마다 새로운 토박이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누리머울림마당(에스엔에스, SNS)에서 ‘배달말지기’를 찾아 동무(친구)가 되시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토박이말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속손말틀(스마트폰) 플그림(앱) 가게에서 ‘토박이말누리’를 내려 받으시면 토박이말, 토박이말 노래, 토박이말 이름과 토박이말 놀이를 하시면서 토박이말을 맛보고 익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토박이말 노래



▲ 토박이말 딱지

현재 토박이말 살리기 운동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누리집 운영 외에 다른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누리 으뜸 글자 한글 바탕, 깊고도 넓은 우리말 어머니, 토박이말을 온 누리에”라는 말을 앞세우고 토박이말을 살리는 데 힘과 슬기를 모으고 있는 ‘토박이말바라기’ 모임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서 올해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는 모두모임(창립총회)을 마치고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박이말을 더 잘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갈침이를 동아리, 푸름이를 동아리를 돕고 있으며, 토박이말 교육을 특색 교육 활동으로 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을 도와 토박이말 알음알이 잔치, 토박이말 솜씨 겨루기 잔치, 토박이말 열매 나누는 잔치들을 두 해째 하고 있습니다.



▲ 진주교육청 토박이말 솜씨 겨루기



▲ 토박이말 갈매옹(수업) 열매

오랜 기간 동안 토박이말 운동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가장 먼저 했던 우리말 도로 찾기를 제대로 못 한 채, 일흔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삶이 우리 토박이말과 너무 멀어져 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토박이말을 보고 다른 나라 말처럼 여기며 낯설고 어렵다고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른들 자리에서 보고 어렵다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미련 토박이말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 주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 말은 더 많이 더 잘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말이지요. 어느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 한 채 살아도 앞에서 미끄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알고 챙겨 주면 좋겠는데 그런 이쁨이도 없는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은어와 비속어의 사용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토박이말 교육 시 효과나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쓰거나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됬됨이를 알 수 있다고도 하고, 그 사람 얼(정신세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며 서로 활취고 생채기를 내는 것이 어찌 아이들 탓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여 주고 그런 말로 밖에 제 느낌,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어른들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넉넉한 토박이말을 맛보여 주고 익힐 수 있게 해 주면 아이들은 모자람이 없는 말들로 느낌과 생각을 막힘없이 주고받으며 다듬어갈 줄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아도 그렇고 나빠도 거칠고 나쁜 말을 쏟아내던 아이들 입에서 토박이말이 펄펄떡 살아 숨 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왜 우리가 토박이말을 챙겨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몸을 살리려고 좋은 먹거리를 챙기듯 우리 얼을 살리려면 토박이말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처음에 토박이말을 낯설어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토박이말을 얼른 받아들이고 즐겨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토박이말 맛을 들여서 둘레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말이 아닌 낯익은 말이 되어 모두가 막힘없이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다리 구실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토박이말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제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는 ‘토박이말바라기’가 더욱 튼튼한 모임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고, 우리 아이들이 쉬운 토박이말로 된 배움책으로 쉽게 배우고 익히는 길을 열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거를 마음껏 뛰어 놀면서 꿈도 꾸고 그 꿈을 키워서 저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겨레말큰사전»에 우리 토박이말이 오롯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더 많이 빠짐없이 들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즐겨 쓰는 말모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토박이말 맛을 들여서 둘레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말이 아닌 낯익은 말이 되어 모두가 막힘없이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다리 구실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모이, 책 속에 잠들어 있는 토박이말을 우리 삶 속으로 데리고 오는 데 힘과 슬기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말다워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71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우리말 보물찾기

용이의 의성어 여행

- 이상배 / 동화작가

사전 속에 숨어 있는 순우리말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예쁘다'고 표현하고 싶은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바로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의태어. 이 말들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연구하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려려고 후원을 산책하다가 숲에서 우는 새 소리를 들었을까요?
"깹깹."
"저 새는 '깹깹' 하고 우니까 까치라고 부를까?"
"빠꼭빠꼭."
"저 새는 '빠꼭빠꼭' 하고 우니 빠꾸기로 부를까?"
새의 이름이 먼저인지, 울음소리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처음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예쁜 의성어, 의태어로 동화 한 편을 읽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모두가 푹푹 잠들었습니다. 하늘에 별들만 반짝반짝 빛납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닭장에서 수탉이 꼬끼오 하고 웁니다. 부엌에서 잔 바둑이도 멍멍 하고 짹었습니다. 따듯한 부뚜막에서 잔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고 기지개를 켭니다.
짹짹,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데도 쥐들이 겁없이 웁니다.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는데 짹짹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귀가 번쩍 쓰인

고양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외양간의 황소는 벌떡 일어나며 목을 흔들립니다. 딸랑딸랑 방울이 울립니다.
아함 잘 잤다. 음매음매! 황소가 소리치자 목소리가 비슷한 음소가 음매 하고 따라 소리칩니다. 경중경중 제자리 뛰기도 합니다.
오리들은 짹짹, 뒤뚱뒤뚱 사립문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냇물에 물놀이하러 가요.
늦잠꾸러기 병아리들은 빠악빠악 더 자고 싶어 칭얼댑니다. 안 돼, 어서 일어나 모이를 많이 먹어야 큰단다.
암탉이 꼬꼬 신호를 보내며 두엄터로 나갑니다. 먹보 돼지는 주인아저씨 들으라고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꿀꿀꿀꿀, 아이고, 배고파 밥 줘요.
부지런한 아버지와 엄마도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빗자루로 마당을 싹싹 쓸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푹푹 도마 소리와 딸그락딸그락 그릇 소리가 들립니다.
마당 빨랫줄에 나란히 앉아있던 참새들이 짹짹 우짹었습니다. 언제 먹이를 사냥해 왔는지 제비들도 나타났습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처마 밑 제비집에 있던 새끼 제비들이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소리칩니다.
엄마, 엄마, 나 먼저 주세요.
짹짹, 그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새들도 우리랑 똑같은 소리로 우네?
참새들은 폴폴 장난을 치며 다른 데로 날아갔습니다. 제비새끼들은 아빠 엄마가 물어다준 먹이를 남남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감나무에서 까치가 깹깹 하고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올 거예요.
감나무를 올려다본 엄마가 벵글벵글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용아, 어서 일어나라.
마당질을 다 한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늦잠꾸러기 용이는 이불 속에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시계는 재깹재깹 쉬지 않고 갑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또 지각입니다. 엄마가 올려놓은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구멍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왔습니다.
음! 맛있는 냄새.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솔솔 풍겼습니다.
용이는 비틀비틀 걸어 수돗가로 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嘩嘩, 물이 나왔습니다. 푸드득푸드득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세수하자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침을 먹은 용이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용이 아버지는 황소를 몰고 일하러 나갑니다. 용이는 뛰어 갑니다. 등에 멘 책가방이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발걸음에 놀란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뛰어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첨벙첨벙, 개구리들은 시원하겠다.
학교 가는 길은 멀고멀었습니다. 구불구불 들길을 지나 산길을 걸어갑니다. 산모퉁이를 지날 때는 박새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호르르 노래를 부릅니다. 산골짜기에서는 빠꾸기 웁니다.
빠꼭빠꼭,
수평도 외칩니다.
쨍쨍,
비둘기도 노래합니다.
구구.
용이는 개울둑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맑은 개울물이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길가에는 노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벌이 붕붕 날아와 꽃에 앉았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자 꽃이 움직입니다. 벌은 그네를 타듯 기분 좋은 모양입니다.
꿀숨이 흔들립니다. 꽃뱀이 스르르 기어갑니다. 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뱀은 볼 때마다 놀랍니다.
노랑나비가 나풀나풀 날아왔습니다. 나비를 보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산자락에 진달래가 울긋불긋 피었습니다. 마치 불을 지른 것처럼 활활 피었습니다.
산길은 고불탕고불탕 나 있습니다. 용이는 익숙하게 짹어 달립니다. 가파른 고갯길도 획획 바람처럼 넘어버렸습니다. 저 멀리에 학교가 보입니다. 소방서의 높은 망루가 가물가물 보입니다.
고갯길을 벗어나 신작로를 걸어갑니다.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오릅니다.
용이는 두 주먹을 쥐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따금 자동차가 뿡뿡 소리를 내며 씩씩 앞장서 달립니다.
용이가 학교 교문에 들어서자 땡땡땡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입니다.
용이는 간신히 지각을 면했습니다. 학교길이 멀어서입니다. 아니,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늦은 것입니다.
용이는 수돗가로 달려가 얼굴을 푸드득푸드득 씻었습니다. 등줄기에도 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용이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용이는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예쁜 선생님만 보면 저절로 벵글벵글 입이 벌어집니다.
용이도 안녕!
선생님도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용이만 보면 웃었습니다.
3학년 1반 교실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



이상배
동화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도서출판 좋은꿈 대표이다. 대한민국 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방정현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책읽는 도깨비』, 『책귀신 세종대왕』, 『부엌새 아저씨』, 『우리말 동화』, 『우리말 바꾸기』 등이 있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뜻풀이 깊고 더하기

한자어 위주 뜻풀이의 문제

- 박일환 / 영남중학교 국어교사, 시인

책을 보다가 낯선 말이 나오면 국어사전에서 뜻부터 찾아보곤 한다. 얼마 전에도 시집을 읽다 '간드레'라는 말이 나오기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았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풀이가 달려 있었다.

간드레(←candle) 「명사」 <광업> 광산의 갱(坑) 안에서 불을 켜 들고 다니는 카바이드등.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카바이드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다시 사전을 들춰보았다.

카바이드등(carbide燈) 「명사」 <전기> 카바이드를 이용하여 불을 밝히는 조명 기구. 탄화칼슘과 물을 섞어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이것을 태워 광원(光源)으로 쓴다.

낱말의 뜻은 간단하면서도 쉬운 말로 풀어주는 것이 좋다. 위 풀이에서 굳이 '조명'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불을 밝히는 기구'라고 해도 충분하다. 더 문제인 것은 뒤에 나오는 '광원(光源)으로 쓴다.'라고 한 부분이다.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넣어 뜻을 풀이하는지 모르겠다. '탄화칼슘과 물을 섞어 만든 아세틸렌을 태워 빛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단순하다. '조명'과 '광원'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아래 낱말을 살펴보자.

인공조명(人工照明) 「명사」 1. 인공의 광원에 의한 조명.

뜻풀이가 모두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이미 있는 낱말의 형태에다 '광원'만 덧붙인 꼴이다. 이런 식의 뜻풀이가 얼마나 불친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전기 따위의 힘을 빌려 만든 불빛'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듯하다. 이렇게 성의 없이 뜻을 풀어놓은 낱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이다.

때로는 잘못된 풀이를 버젓이 올려놓고 있기도 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낱말을 보자.

연구비(研究費) 「명사」 어떤 사물을 연구하는 데 드는 비용.

뜻풀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 있겠다. 우선 '비용' 대신 '돈'이라는 우리말을 쓰면 안 되느냐 하는 점이다. '재료비'나 '원료비' 등의 뜻풀이에도 모두 '돈' 대신 '비용'이라는 한자어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보다 한자어를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 여기는 심리가 깃들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비가 꼭 사물을 연구할 때만 들어가느냐 하는 점이다. 정작 '연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풀어놓고 있다.

연구(研究) 「명사」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

연구의 대상을 '어떤 일이나 사물'이라고 해놓았다. 그렇다면 '연구비' 항목도 이에 맞추어서 풀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사물' 대신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정확한 풀이에 다가갈 수 있다. 사물이 아닌 여러 동식물이나 사람도 연구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뜻풀이를 함에 있어 정확성과 엄밀함을 따져보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허술한 뜻풀이가 자주 눈에 띄는 건 사전 편찬자의 무책임과 불성실해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살핀 '연구'와 '연구비'보다 더 엉뚱한 뜻풀이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액세서리(accessory) 「명사」 복장의 조화를 도모하는 장식품. '노리개', '장식물', '치렛감'으로 순화.

우리말로 순화하라는 친절을 보이고 있지만 뜻풀이는 그냥 보아 넘기기 힘들다. '복장, 조화, 도모, 장식품'이라는 한자어를 빼고 뜻풀이를 할 수는 없었을까? 더구나 액세서리가 '복장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는 데 이르면 절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반지나 귀걸이가 복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문으로 제시한 '머리에 꽂은 액세서리가 돋보인다.'라는 문장과도 맞지 않는 풀이인 셈이다. '몸을 돋보이도록 꾸미는 데 쓰는 물건' 정도로 풀이하면 좋겠다.

국어사전의 기능은 정확성과 함께 낱말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예를 든 몇몇 낱말의 사례에서 보듯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아예 잘못된 뜻풀이를 실어놓고 있기도 하다. 국어사전이 정말 국어사전다우려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편찬자들이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한자어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뜻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박일환 |

1961년 생, 1997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하며 『꿂어진 현』, 『지는 싸움』 등의 시집을 냈으며, 우리말 관련해서 『미주알고주알 우리말 속담』, 『국어 선생님 잠은 우리 말을 깨우다』, 『미친 국어사전』 같은 책을 썼다.

■ 남녘말 북녘말

‘냄비’와 ‘쟁개비’, ‘찜개’와 ‘반찬’

- 설송아 / 데일리NK 기자

“쟁개비에 콩나물 찜개 있어요. 돼지고기 찜개는 식개기판에 있구요.”

한국입국 2년 차 ‘할머니 순대국 집’에서 알바를 할 때 일이다. 점심시간 손님이 많은 관계로 서빙하는 3명이 교대로 밥 먹게 되었다. 먼저 밥을 먹은 다음 나는 한국 언니에게 식사하라며 말했다.

“쟁개비에 콩나물 찜개 있어요. 돼지고기 찜개는 식개기판에 있구요.”

내가 독일말이라도 한 듯이 한국 언니의 눈동자가 커졌다. 잘못 들었나 싶어 나는 반찬그릇이 놓인 위치까지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말했다.

“저기 오븐위에 쟁개비랑 식개기판이랑 있잖아요.”

“콩나물이 어쨌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못 들었어.”



주방에서 폭소가 터졌다.

“쟁개비? 성냥개비도 아니고... 후라이팬이 뭐 뭐라구요? 조선쪽이에요?”

“조선쪽 말씨도 아니야..저쪽(북한)에서 왔어요?” 제각기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언니들이 무스워 나도 한바탕 웃어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왔다는 말은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

북한 사투리가 깊숙이 몸에 배겨 고치자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던 찰나, 제대로 한 코 먹는 셈이다. 북한 평안도 사투리 ‘쟁개비’를 한국에서는 ‘냄비’, ‘식개기판’을 ‘후라이팬’이라고 이미 일년 전에 배웠건만 수십 년 체질화 된 남북언어차이가 결국 이방인 마당을 만든 것이다.

휴식 참에 마늘을 까면서 남북사투리는 또 한 번 웃음판을 만들었다. 먼저 북한말 ‘찜개’와 한국말 ‘반찬’이었다. 평안남도에서 ‘반찬’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나 민물고기 요리만 ‘반찬’이라고 하며, 육류를 비롯한 남새요리는 통틀어 ‘찜개’라고 한다. 통일 후 서울사람들이 평안남도 주민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밥반찬 맛있겠네요.’ 한다면 ‘농담을 즐기시네요.’라고 답할 것이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밥상음식을 반찬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평안도와 달리 요리음식은 모두 ‘반찬’이라고 한다. 하지만 평안도 지역은 찜개요리와 물고기반찬 구분이 뚜렷하다. 텃밭의 남새를 씻어 오븐 위에 놓아두는 모습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생활풍경이다. 한국말 ‘쟁반’이 평안도 사투리 ‘오봉’이다. 오봉은 일본 사투리가 아닐까 싶다.

한국에 온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식당 알바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손님 몇 명이 테이블에 앉더니 한우 불고기를 먼저 주문했고 반찬 몇 가지를 더 첨가했다. 한동안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서빙을 하던 나에게 ‘처음처럼’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나는 제격 주방으로 달려가 처음에 주문한 한우 불고기를 손님들이 첨가한다고 말했다.

한우를 가지고 주문받은 테이블에 갔더니 서비스가 좋다며 ‘처음처럼’ 빨리 가져다 달라고 다시 말했다. 순간 멍~ 얼굴이 돌아올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서있기만 할 때 계산대에 있던 식당사장이 달려왔다.

“무엇을 요구 하십니까?” “처음처럼 두병 주세요.”

모든 것을 알아차린 사장이 ‘처음처럼’ 술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드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허망했을까... 탈북자 신분을 알고 계신 사장님이 다행히 화내지 않고 ‘처음처럼’, ‘참이슬’ 등 술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내가 바보 같아 솔직히 엄청 상처 받았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 북한 말로 “종이 집개 주세요.” 했더니 끝내 알아듣지 못해 농아인 시늉을 몇 번 내보았다. 그래도 30대 마트 직원 분은 외국인 바라보듯 나를 이상하게 보기만 했다. 구매를 포기하고 사무실 와서야 ‘종이 집개’가 아니라 한국말로 ‘스태이플러’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 온지 8개월이 된 한국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과 벌써부터 언어차이로 소통 안 될 때가 있다. 지난 주말 아들과 백화점을 돌아보던 나는 “꼬깔 단복” 이쁘다. 하나 사줄까?” “어머니 이건 ‘후드티’라고 해요.” 아들과 웃으며 쇼핑의 하루를 보냈지만 언어의 차이가 모자의 소통에도 담벽이 생기고 있음을 처음 직감했다. 10대 아들은 벌써 한국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될까... 북한 언어를 버리고 한국 외래어 공부를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일인지 잠시 생각했다. 세계와 단절된 북한사회 언어를 전통적인 민족 언어라고 봐야 될지, 글로벌 세계화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외래어가 발전적인 언어라고 단정할지는 남북이 모두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언어 차이는 지역 사투리이기 전에 또 하나의 새로운 분단문화를 생성하고 있다. 남북 문화통합의 우선인 언어의 갭 때문에 날이 갈수록 문화가 분단된다면 민족소통은 한국말 그대로 ‘핵노잼’이 아닐까 싶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설송아 |

평안남도 출신, 2011년 한국 입국. 데일리NK기자로 북한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

남녘말 북녘말 이, 이빨, 이발 보기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남녘말 북녘말

이, 이빨, 이발

· 고대영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이제 돌이 다 되어 가는 아들이 있다. 얼마 전부터 기어 다니는 것을 떼고 슬슬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다. 겨우 몇 발자국 디디곤 자기 흥에 겨워 박수를 쳐댄다. 박수를 치는 것도 서툴러 제대로 된 ‘ 짹 ’ 소리 한번 내지 못하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게 마냥 좋은 모양이다. 반달이 된 눈과 해죽하게 벌린 입으로 웃는 모습이 참 가관이다. 만 1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얼굴에서 여든 노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렇다. 그건 이 때문이다. 벌린 입에는 윗니 2개, 아랫니 2개가 자랑스럽게 빼죽 돌아 있다. 입을 벌려 웃는 것도 자기 뺨에는 ‘ 난 이가 4개나 있지! ’ 하며 자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치를 유치하게 자랑하는 아들 녀석이 귀엽다.



치아를 가리키는 말에도 남북의 차이가 있다. 관련된 어휘로는 한자어 ‘치아(齒牙)’, ‘치(齒)’가 있으며 고유어 ‘이’, ‘이빨/이발’이 있다. 한자어 치아와 치는 모두 이를 이르는 말이지만 용법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치아’는 다른 일반명사와 같이 그 쓰임이 자유로운데 반하여 ‘치’는 ‘치를 썬다, 치가 썬다’와 같은 주로 관용 표현에서 제한적으로 쓰인다. 치아와 치의 이런 쓰임은 남북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남에서는 치아를 ‘이’를 점잖게 이르는 말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북에서는 ‘이’와 같은말로 보고 있어 차이가 난다.

남북 표기상의 차이는 ‘이빨/이발’과 이가 복합어를 만들 때의 표기에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이3 「명사」

① 『의학』 척추동물의 입 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

이빨 「명사」

‘이3’를 낮잡아 이르는 말.

누런 이빨/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울부짖었다.

◀조선말대사전▶

이2 「명사」

① 입안의 아래우에 줄을 지어 있으며 음식을 씹는 희고 굳은것.

이발 [-빨] [명]

① =이2.

하얀 이발/이발이 곱다.

남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여 ‘이빨’로 적고 있고 북에서는 발음은 [이빨]로 남과 다르지 않으나 표기는 ‘이발’로 적어 차이를 보인다. 남에서는 <한글맞춤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두 모음 사이에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에 따라 ‘이빨’로 적는다. ‘이빨’은 어원상으로 보아 ‘이+발’의 복합어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발’의 쓰임이 불분명하고 된소리가 날 뚜렷한 까닭이 없으므로 ‘잇발’과 같이 적지 않고 ‘이빨’로 적는 것이다. 한편 북에서는 ‘발’의 형태가 분명히 분석된다고 보아 형태주의에 따라 그 형태를 고정하여 ‘이발’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남에서는 이빨을 이의 낮춤말로 보았으나 북에서는 이와 이발을 같은말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가 복합어를 만들 때도 표기에 차이를 보인다. 즉 남에서는 ‘사랑니, 어금니’와 같이 ‘이’가 복합어를 이룰 때 ‘니’로 표기되는데 북에서는 ‘사랑이, 어금이’와 같이 ‘이’ 표기가 그대로 된다. 남에서는 <한글맞춤법> 제27항 붙임3의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의 단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에 따른 까닭이다. 그러나 북에서는 형태주의에 따라 이 경우에도 ‘이’로 그 형태를 고정하여 쓰고 있다. ⁷⁸⁰

! 고대영 !

현재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남녘말 북녘말 ‘냄비’와 ‘쟁개비’, ‘짚개’와 ‘반찬’ 보기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제24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 개최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4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은 이사장,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 문영호 북측편찬위원장 등 남북의 편찬위원 및 편찬원들이 참석하여 분과회의와 집필회의를 진행하였다.

분과회의에서는 집필 및 교열 과정에서 제기된 올림말 선정 기준, 비규범어 처리 방식, 삽화 수록 지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8개조로 나누어 진행된 집필회의에서는 올림말 집필 원고 24,129개를 검토하여, 이 중 18,466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총 33만여 개 어휘 중에서 10만여 개의 원고를 합의하였으며, 남북 양측은 올해 한 차례 공동편찬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 2015년 10월 12일~19일 진행된 제24차 공동편찬회의(금강산)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제70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10월 8일 제70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홍종선 편찬위원장과 김창섭, 유현경, 조남호, 정희창 편찬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4차 공동편찬회의 준비 사항 보고와 삽화 수록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2015년 10월 8일 개최된 제70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소식

사업회 통일부 실지감사 진행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회 운영 및 기금 운영'과 관련한 '2015년도 남북협력 기금 실지감사'가 있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통일부(감사관실)는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기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사업회는 앞으로도 투명한 사업회 운영과 기금 집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소식

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 사업회 견학

지난 10월 2일에는 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 20여 명이 사업회를 방문하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의미, 사전 공동 편찬 작업 경과, 남북 민간 교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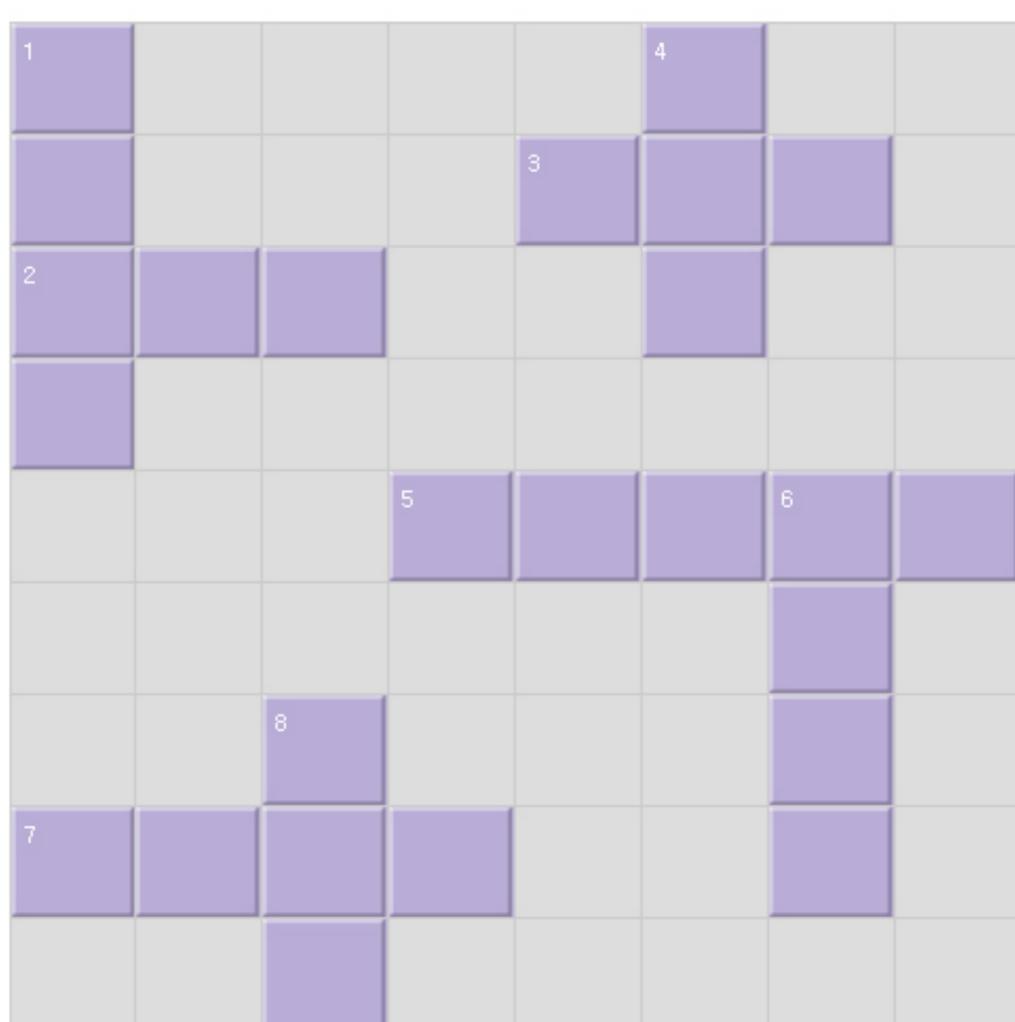
학생들은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장인 사전 편찬실과 자료실도 둘러보았다. 한 참가 학생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우리말 동질성을 위해 편찬되는 사전의 완성된 모습이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2015년 10월 2일 사업회에 방문한 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보물찾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북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낱말 풀이



- ① '드라이클리닝'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약품을 써서 화학적방법으로 빨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 ○○빨래.
예) ○○○○와 물빨래.
- ② '세탁소'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빨래를 해주는 편의봉사기관."을 뜻한다. ○○집.
- ③ 북에서 '나이프'를 다듬은 말로, "서양음식을 먹을 때 쓰는 칼."을 뜻한다. 밥상○.
- ④ '상호간'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서로의 사이."를 뜻한다.
예) ○○○ 아끼고 사랑하다.
- ⑤ '전기밥솥'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밥을 끓일 수 있게 전기열을 내는 장치가 함께 달려있는 밥가마."를 뜻한다.
예) 숙명은 ○○○○며 행동기, 세탁기들을 미리저리 살펴도 보고 만져도 보았다. 《우리집》
- ⑥ '평염'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혜염의 한가지로 엷드린 자세로 두 팔을 앞, 옆, 뒤의 방향으로 저으며 물을 끌어당겼다다 다시 가슴 앞으로 모아 앞으로 퍼며 두 다리를 같이 배쪽으로 끌어당겼다다 뺄으면서 물을 찬다. 경기 혜염 종목의 하나이다." ○○혜염.
예) 개구리혜염을 치는 아이, ○○○○을 치는 아이 모두 제 재간껏 혜염을 치고 있다. 《여름바다》
- ⑦ '양배추'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남새의 한가지. 두껍고 살진 잎이 겹겹이 싸여 둥근 통을 이룬다.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거둘 수 있다. 여러가지 요리와 김치, 절임 등을 만드는데 쓰인다." 가두 ○○.
- ⑧ 북에서 '흡연실'을 다듬은 말로, "담배를 피우도록 따로 설치한 방이나 칸."을 뜻한다. ○○칸.

